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3



▶ 84회 예고

마침내 순례일행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삡팔라나무(보리수)를 참배한다. 우빠굽따에게 설법을 들은 아쇼까왕은 감동한 나머지 삡팔라나무 옆에 불탑과 석주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데, 석주에는 삡팔라나무를 조각하라고 명한다.

아쇼까왕, 태자가 고행한 곳에 이르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강가강 지류를 건너서 서남쪽으로 갔다. 다르마 대비의 영향을 받아 불심이 깊어진 아상가밋따 정비는 고따마 붓다가 성도한 곳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 왕비는 수레바퀴가 고장나거나 흙바람이 불 때마다 짜증을 냈다.

"삡팔라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 "

"왕비님, 삡팔라나무가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붓다께서 성도하신 곳에 있는 나무라서 찾아가시는 것이랍니다."

시녀가 짜증을 내는 띠쉬아락시따 비위를 맞추었다. 다음날 오후, 우빠굽따는 순례일행이 야영하기 전에 어제 하지 못했던 태자의 이야기를 이동법당 수레에 올라서 설했다.

"태자는 알랄라 깔라마와 헤어진 뒤 마가다국 수도 라자그리하로 갔지요. 라자그리하 부근 산에도 존경할 만한 선인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자그리하 주위에는 영취산 등 다섯 개의 큰 산이 있었다. 태자는 빤다바산으로 들어가 아수라(Asura)동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태자는 동굴에서 나와 라자그리하의 선인을 찾아갔다. 선인의 이름은 웃따까 라마뿟다(Uddkaramaputta)였는데, 제자는 7백여 명이나 되었다. 부근의 산에 머무는 대부분이 그의 제자였고, 라자그리하 주민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태자는 웃따까 라마뿟다가 어떤 경지이기에 모든 수행자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궁금했다.

"선인이시여, 나는 그대가 깨달은 경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정수행주의자 웃따까 라마뿟따는 태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알려주었고, 태자는 빤다바산의 아수라동굴로 돌아와 웃따까 라마뿟따가 알려준 방법대로 정진했다. 그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았다. 태자는 곧 그 경지에 도달했고, 다시 웃따까 라마뿟따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경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맞소. 이제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를 알려주겠소."

비상비비상처란 당시 수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정삼매를 말했다. 웃따까 라마뿟따 역시 알랄라 깔라마처럼 자신의 교단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태자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태자는 그가 가르쳐준 비상비비상처도 생사윤회를 끊는 경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태자는 라자그리하를 떠나 서남쪽으로 향했다. 태자는 수행자들 사이에 고행촌(苦行村)이라고 불리는 우루웰라(Uruvelā: 큰 모래밭마을)로 갔다. 우루웰라 앞으로는 강가강의 지류인 네란자라강이 흘렀다. 태자는 네란자라강 강변 모래밭에 가부좌를 튼 채 자신과 약속했다.

'깔라마와 라마뿟따도 내게 생사윤회를 끊는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 선정삼매에 드는 것만으로는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수행자들에게 존경 받는 두 선인에게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다.'

태자의 모습은 비장했다.

'위없는 깨달음은 남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리라. 위없는 깨달음은 내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으리라.'

태자는 자신이 수행할 장소를 찾아서 네란자라강 옆의 들길을 걸었다. 그때 한 무리의 수행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고행을 한 뒤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태자가 말했다.

"이곳 우루웰라는 수행하기에 어떻습니까?"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강이 있어 목욕하기에 좋고, 농가가 가까워 탁발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까삘라성에서 온 싯다르타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태자는 네란자라강과 모하나강 사이의 고행림(苦行林)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밑에 갈대를 깔았다.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란 염소치기의 무화과나무(龍樹)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섯 명의 낯익은 수행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웃따까 라마뿟따 제자들로 태자를 흠모하여 라자그리하에서부터 뒤따라 온 수행자들이었다.

'저 싯다르타는 짧은 시간에 웃따까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웃따까 곁을 떠난 분이 아닌가. 우리는 웃따까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저 싯다르타는 우리와 다르다.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 수행자임이 틀림없다.'

태자는 우루웰라의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이라기보다는 타성에 젖은 행동일 뿐 진정한 고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행자들 중에 비록 몸으로는 탐욕을 끊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애착을 버리지 못한 이가 있다. 이 역시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물속에서 마주 비비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수행자들 중에 바르게 닦아 몸과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하는 이가 있다. 이는 불을 얻기 위해 잘 마른 나무를 마른 땅에서 마주 비비는 것과 같아 비로소 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신이 맑고 고요한 상태에서 고행을 해야만 위없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윽고 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맑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 뒤 고행을 시작했다. 우루웰라 수행자들 중에서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극한의 혹독한 고행이었다.

결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먼저 호흡을 멈추었다. 그러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가득 찼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더니 이마에서도 땀이 비 오듯 했다. 호흡을 막으니 양쪽 귀에서 커다란 공명이 생겨나 풀무질하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 그래도 귀와 코, 입으로 모든 호흡을 막아버리니 몸 안의 열기가 정수리로 올라가 충돌하면서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호흡을 계속 멈추니 몸 안의 바람이 양 겨드랑이 사이에 사납게 불어 닥치며 당장 몸이 풍비박산이 날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몸 안이 불길에 휩싸이는 듯했다.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하면서도 단식도 병행했다. 식사의 양을 줄여 하루에 보리 한 톨만 먹기를 계속하자, 몸은 여윌 때로 여위어 배와 등뼈가 달라붙었다. 다시 보리 한 톨에서 삼씨 한 톨로 줄이자 피부빛깔이 잿빛으로 변해 시체와 같아져 버렸다.



태자는 이와 같은 고행을 6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이를 지켜보던 웃따까의 제자 다섯 명은 태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태자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 수행 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행을 더 밀고 나간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겨우 한 가닥 목숨만 남은 상태에서 태자는 고행이 최선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6년 동안 견디었던 고행보다 더한 고행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고행의 극단까지 가보지 않았던가. 과거에 고행했던 선인들도 이 정도 수준의 고행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누군가가 고행한다 해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문득 태자는 까삘라성 시절이 떠올랐다.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가했을 때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삼매에 든 기억이 떠올랐다. 잠시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던 그 경험은 고행 없이도 이루어진 삼매였던 것이다. 마침내 태자는 선정을 방편 삼아 생사윤회를 끊는 깨달음에 다가서기로 결심했다.

'고행을 지속하는 것은 몸을 해칠 뿐이니 나를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칠 대로 지친 내 몸을 추슬러야 한다.'

태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공양을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위의를 갖추어야 했다. 태자는 옷을 구하기 위해 쁘락보디산 공동묘지로 갔다. 공동묘지에는 시체를 쌌던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태자는 천 조각들을 주워서 기운 분소의를 입었다.

우빠굽따가 싯다르타 태자의 6년 고행을 이야기할 때는 마힌다는 물론이고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 아상디밋따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왕도 마음이 격동되어 깊은 숨을 내쉬며 가까스로 진정했다. 아쇼까왕은 대왕코끼리를 타고 쁘락보디산으로 올라가 태자가 우기 때마다 찾아와 고행한 동굴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동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동굴을 나와 싯다르타 태자가 천 조각을 주웠던 공동묘지를 지나쳐 다시 우루웰라로 갔다. 우빠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싯다르타 태자께서는 맨발로 이 네란자라강을 건너시곤 했습니다. 대왕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물이 깊소?"

"발목만 잠길 정도로 얕습니다. 원래 네란자라란 물이 없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수심이 깊은 줄 알았소."

"대왕코끼리를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아니오. 싯다르타 태자처럼 나도 맨발로 건너겠소."

아쇼까왕이 샌들을 벗자, 왕비와 신하들이 모두 따라서 했다. 모래는 흰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아쇼까왕은 발바닥을 애무하는 모래의 감촉을 즐기면서 모래밭을 걸었다. 호위대장이 먼저 대왕코끼리를 끌고 네란자라강을 건넜다. 왕비들이 탔던 수레도 강을 건너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져온 석주는 군사들이 목도하여 운반했다. 아쇼까왕이 삡팔라나무가 있는 붓다성지를 순례했다는 기념으로 세워질 석주였다. 석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단은 사자 네 마리가 양각된 부분이었고, 하단은 길쭉한 돌기둥이었다. 네란자라강 너머는 유채꽃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우빠굽따가 아쇼까왕 옆으로 와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태자께서는 고행림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아래서 6년 고행을 끝내고 이 강물로 몸을 씻으신 뒤 수자따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란자라강 강물이 시원하오. 태자도 시원하다고 느꼈을 것 같소."

"강물의 시원함은 지친 태자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소. 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소."

네란자라강을 다 건넌 아쇼까왕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멀리 돌산인 쁘락보디산(Pragbodhi)이 솟아 있었고, 그 밑으로 공동묘지와 대숲이 있는 우루웰라가 보였다. 아쇼까왕은 다시 대왕코끼리 등에 올랐고, 왕비들은 수레를 탔다.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와 어린 수마나 사미는 조그만 농로를 맨발로 걸었다. 농로 양옆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군사들은 벌써 유채밭 너머 마을에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리치곤 했다. 네냐니가마(장군촌)라고 불리는 농원은 매우 컸다. 끄샤뜨리아 신분의 장군이 살기 때문에 장군촌이라고 불렸다. 장군의 딸 이름은 수자따였다. 장군은 네라자라강과 모하나 강변에 있는 대부분의 들판을 소유한 부호였다. 주민들은 대왕코끼리 등에 고정된 일산을 보고나서야 뒤로 물러났다. 온갖 보석이 반짝거리는 일산은 왕만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